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임대환	소 속	기계시스템공학과
학 년	3	학 번	20141508
연수 국가	일본	연수 기관	오사카부립대학교
연수 기간	2018.07.01~2018.07.27		

저는 이번 연수가 모든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출국도 해보고 해외도 처음가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긴장을 하며 준비하던 전날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 도착하며 모든 간판이 다 일본어로 되어있는걸 보니 실감을 하며 모든것들이 눈에 신기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숙소를 찾고 첫날 자유롭게 주위를 돌아다니며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느끼며 여러생각이 드는 첫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부터 학교를 가면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랩실 인원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할줄 모르니 많이 불편할까 라는 걱정과 달리 랩실 친구들도 영어를 할줄 알아서 의사소통에 문제는 딱히 없더라군요. 랩실 인원들과 함께 이 랩실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듣고 또 교내에 있는 식물공장을 보면서 일본 대학교 랩실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실험주제가 저곳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며 돌아온게 생각이 납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 랩실인원들이 이방인이고 외국인인 나에게 낮가리며 어떻게 친해질 수가 했는데 전혀 그런걱정과 달리 정말 환영해주고 파티도 열어주며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마움 덕분에 영어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많은 추억을 쌓곤 하였습니다. 또 서로의 추억을 더 남기고 싶어서 교토여행을 다 같이 생각하고 교수님께 허락받으며 일본최대 축제중 하나인 텐진 마츠리를 즐기고 교토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일본 문화를 알게 되며 아직까지도 그 여행의 추억이 새록새록 하곤 합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적응하는 첫째주가 지나니 교수님께서 차근 차근히 이 랩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시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를 하며 보고서를 하나 하나 작성해 나갔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쓰면서 식물공장을 자세하게 보고 배우며 기계공학의 새로운 분야를 일본은 먼저 앞서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교수님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열심히 보고서도 쓰고 오사카 곳곳을 탐나면 구경가고 하다보니 한달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귀국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심 일찍 나와 숙소 주변 난바쪽을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한달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바라보고 저녁에 맥주한캔들과 도톤보리강을 보면서 잘왔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생활해보는것이 중요하고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을 느낀 한달이 었습니다. 일본어를 하지못해서 이 연수프로그램에 지원할 생각을 고민하는 학우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이 아니여도 충분히 부딪혀보고 경험하며 기억남는 한달을 누구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감가지고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국제교류원분들과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